

# 외국어교수에서 주의의 본질과 특징

박 창 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야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교육사업을 높은 과학적도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빨리 높일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492페이지)

교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는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선차적인 사업이며 이것은 외국어교육부문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외국어교수는 학생들에게 외국어지식과 기능,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언어지식에는 어음지식, 문법지식, 어휘지식이 포함되며 언어기능에는 읽기기능, 듣기기능, 말하기기능, 글쓰기기능이 포함된다. 활용능력은 교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실천에서 응용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이 모든 지식과 기능, 활용능력은 결코 저절로 습득되고 형성되는것이 아니며 교수에서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활동을 담보하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지난 시기 다른 나라의 심리언어학연구사들과 교육학연구사들은 교육과학연구의 한 분야로서 외국어교수와 습득의 효과성을 보다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주의》와 관련한 연구사업들을 적지 않게 진행하였다.

실례로 어느 한 나라의 교육학연구사는 자기의 저서 《2언어습득에서 의식의 역할평가》에서 외국어교수와 습득에서 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논다고 특별히 주장하였으며 주의는 전수내용을 원리적으로 파악하고 뇌수에 기억저장하며 그것을 활용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선결적인 조건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지각적효과, 빈도수, 문장론적요소들의 편속성을 비롯한 일반적인 인지적요인들에 주의를 집중하여 전수내용을 인식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학생들이 자기들의 발화와 표준발화, 능숙한 언어사용자의 발화를 비교하여 두 발화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해주는것이 바로 주의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외국어교수에서 주의의 역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부가 어휘적의미와 어용론적기능습득에 대하여 취급하였지만 주로는 형태론과 문장론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있다. 실례로 어느 한 연구사는 자기의 도서 《언어학연구사의 관점에서 본 언어학습방법평가》에서 외국어학습의 모든 분야 즉 음운, 문법, 의미, 어용적의미, 어휘, 담화조직에서 학생들은 의미에서의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의미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에 주의를 집중하여 그것들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장론적으로 보면 《I turned the covers down.》(나는 식탁보들을 접었다.)과 《I turned down the covers.》(나는 식탁보들을 접었다.)는 직접보어의 위치가 달라졌어도 의미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발화에 대명사가 사용되면 의미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다시말하여 《I turned it down.》은 《나는 (라디오나 TV의) 음량을 낮추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road(도로)에 대한 대명사가 사용된 《I turned down it.》은 《나는 도로아래로 꺾어들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이 경우 학생들이 두 발화의 어순상차이를 포착하고 형태구조에 알맞는 정확한 의미를 리해하자면 주의를 집중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그는 낮은 단계의 학생들이 인지적부담이 너무 크면 의미변화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에 주의를 집중할수 없기때문에 단순한 인식방법들을 많이 배워주어 그들이 복잡한 내용들에 주의를 집중할수 있는 보다 높은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종당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든 요소들에 주의를 돌리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외국어교수와 습득에서 차지하는 주의의 지위와 중요성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주의의 본질과 특징, 역할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창조적사고활동에 작용하는 심리적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말할수 없다.

학생들의 인식활동은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따라 진행된다. 교수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감성적인식과 이성적인식의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감성적인식은 사람이 감각기관의 작용을 통하여 대상의 외적속성을 파악하는 인식의 낮은 단계이며 이성적인식은 추상적사유를 통하여 사물현상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는 높은 단계의 인식이다.

주의는 교수에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인식활동을 추동하는 심리적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주의는 사람들의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사람들은 주위세계에 존재하는 천태만상의 사물현상들을 맹목적으로 대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목표를 선정하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외국어교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당하는 언어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수에서 각이한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면 학생들이 언어지식과 기능, 사용원리를 스스로 포착하고 파악하는 창조적사고활동을 진행할수 없게 된다.

학생들마다 주의를 집중하려는 대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주의집중력도 차이나기때문에 외국어교수에서는 교원이 학생들의 각이한 능력과 특성에 맞게 그들의 주의를 최대로 집중시켜 창조적인 사고활동을 진행할수 있게 교수활동을 설계하고 각이한 류형의 연습을 제시하여 학생들스스로가 언어지식과 기능들을 포착하고 습득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활용능력을 키워주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외국어교수에서의 주의는 외국어습득을 위한 학생들의 감성적 및 이성적인식활동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담보하는 심리현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외국어교수에서의 주의는 감성적인식과 이성적인식에 작용하는 심리적현상으로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외국어교수에서 주의의 특징은 첫째로, 그것이 목적의식적이라는것이다.

물론 모든 과목의 교수에서 학생들이 집중하는 주의는 목적의식적인 특성을 나타내지만 특히 외국어교수에서의 주의는 목적의식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수 있다.

다른 과목들에서의 교수는 언어적으로 볼 때 모국어를 수단으로 하여 진행되지만 외국어교수의 목표와 수단은 모국어와 많은 측면에서 공통점보다도 차이점이 더 많은 외국어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인식활동에 작용하는 주의가 보다 목적의식적인 성격을 띠것을 요구한다.

주의의 류형에는 의도적주의와 비의도적주의가 있는데 교수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의는 의도적주의이며 이러한 의도적주의를 곧 목적의식적인 주의라고 할수 있다.

외적인 자극에 의한 비의도적주의현상도 일어날수 있지만 창조적사고에 기초한 학생들의 인식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에서는 의도적주의가 필수조건으로 제기된다. 학생들

의 창조적사고활동, 능동적사고활동 그자체가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므로 응답 이에 필요한 주의도 목적의식성을 띠게 된다.

외국어교수에서 주의의 특징은 둘째로, 그것이 지속성과 집중성을 띤다는것이다.

주의의 지속성과 집중성은 서로 통일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지속적인 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집중적인 주의의 지속성을 의미할뿐 일반적인 주의의 지속성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외국어교수에서 학생들은 초기에 시각 및 청각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어의 형태구조에 대한 감성적인식을 진행하며 그에 기초하여 의미해석과 같은 사유를 진행하게 된다.

외국어교수에서 학생들이 전수내용에 대한 주의의 지속성과 집중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인식활동에서 공백이 생기게 되며 이것은 학생들의 창조적사고활동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학생들에게 영어듣기기능을 습득시키는 영어듣기교수에서 학생들은 듣기련습전기간 주의의 지속성과 집중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어듣기기능이 다른 언어듣기기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힘든 사정과 관련된다.

외국어교수에서 주의의 특징은 셋째로, 그것이 선택적이라는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주의를 돌리는 대상과 관련되는 특징이다.

학생들은 주요하게 자기들의 요구에 따라 주의를 집중해야 할 대상들을 각이하게 선택한다. 외국어학습은 자연히 모국어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측면도 있고 부정적측면도 있다.

외국어교수에서 학생들은 해당 언어와 모국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두 언어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측면들은 이미 알고있는 지식의 한 부분으로서 보다 쉽게 인식되며 차이나는 측면들은 새로운 부분으로서 보다 힘들게 인식되게 된다. 학생들은 두 언어사이에 존재하는 이 차이점들을 선택하여 주의를 집중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인식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미 배웠거나 알고있는 지식과의 비교속에서 교수를 통하여 전수되는 내용들가운데서 새로운 항목들에 주의를 돌리게 된다. 물론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순차성의 견지에서 보면 전 교수내용과 현 교수내용은 연속성을 가지고있으나 이것은 학생들이 주의를 돌리는 대상들이 동일하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국어교수에서 주의의 특징은 넷째로, 그것이 순차적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주의 대상의 전환과 관련되는 특징이다.

외국어교수에서 학생들은 여러개의 대상들에 동시에 주의를 돌릴수 없으며 이러한 산만한 주의를 오히려 학생들의 창조적사고에 지장을 주게 된다.

외국어교수에서 학생들은 먼저 해당 외국어로 된 언어자료에서 구성요소들의 형태구조에 주의를 돌리고 그에 기초하여 의미해석을 진행한다. 물론 단순한 구조의 언어자료인 경우에는 형태구조와 의미에 동시에 주의를 돌릴수 있지만 복잡한 구조의 언어자료인 경우에는 형태구조나 어휘적의미뿐만아니라 담화문맥과 정황, 어용론적의미에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하기때문에 주의할당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외국어교수에서 주의의 기능과 역할, 주의를 최대한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방도를 비롯하여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구현해나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외국어교수를 과학리론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